

# [ A회 ]

## [ 정답 ]

1	2	2	2	3	3	4	4	5	5
6	1	7	3	8	5	9	1	10	3
11	5	12	2	13	1	14	1	15	3
16	5	17	4	18	5	19	2	20	4

[ 예상 등급컷(6월 기준) ]

1등급 컷 : 47

2등급 컷 : 43

1.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100%]

### [출제 포인트 :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는 이렇게 풀이한다.

- 어떤 현상인지 자연 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 파악한다.
- 사회문화 현상인지 자연 현상의 특징인지 구별한다.  
(하지만, 양쪽에서 모두 가능한 선지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제시문 분석 >

㉠은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라는 인간의 관심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은,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하 암석이 용해된다는 것이므로 자연현상, ㉢은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싱크홀이라는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연현상, ㉣은 만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것이기에 사회문화 현상이다.

< 선지 분석 >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는, EBS 수능특강 1강의 첫 부분을 완전히 암기해두는 것이 좋겠다. 선지로 항상 거의 다 적중해오고 있다. (사실 적중이 아니라 그곳에서 낸다고 봐야할 것이다.)

①존재 법칙이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으로, 자연 현상의 특징이고, ②자연 현상의 등장은 사회 문화 현상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자연 현상은 인간이 우산을 챙긴다는 사회문화 현상을 유발한다.) ③확률의 원리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개연성을 띤다는 의미와 유사한데, 어떠한 원인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가 항상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즉 100%가 아니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④가치함축적이라는 것은,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가치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가치란 '인간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성'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⑤ 특수성이란,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다.

정답 : 2

2.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 [출제 포인트 :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을 묻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파악한다.
- 선지에서 양적 연구와 관련된 선지인지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선지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 분석 >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 방법론적 이원론의 전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론이 요구된다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 현상의 '의미'를 이해

=> 인간 행위의 동기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 연구의 관심분야

< 선지 분석 >

- 질적 연구에서는 행위의 동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커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계량화나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양적 연구의 특징이다.
-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이다. (한편,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활용한다.)
- 주관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는 질적 연구이다.
- 방법론적 이원론은 질적 연구의 중요한 개념이니 암기하십시오.

정답 : 2

3.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 [출제 포인트 : 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

사회학적 개념을 묻는 문제는 유형화할 것이 없다. 그냥 명확하게 개념이 이해가 되어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 선지 분석 >

- 영화에서 '엄마'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가 아니고, 버려진 아이를 주워서 범죄를 위해 사용해야 '엄마'가 되므로 성취지위이다.
- 제시문에는 역할긴장이나 역할모순을 겪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역할긴장 : 한 가지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 행동이 여러 가지인 것, 역할모순 : 여러 가지 지위중에 고민하는 것)
-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사회화 기관을 의미하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 한편, 프랑스의 요리학교 르코르동블루는 전문적으로 요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설립된 기관이다.
- '석현'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레스토랑 요리사 집단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3

4.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 [출제 포인트 : 자료 수집 방법(질문지법)]

자료 수집 방법 중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단, 표본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전검사, 개념의 조작적 정의 등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 선지 분석 >

-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인식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연구자가 그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는 집단의 전체입니다. 이러한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실제 조사를 위해 실제로 설정한 집단은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 명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아 응답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당신은 영화를 한달에 몇 번을 보신다는 것은 명료성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PC방에 자주 가십니까? 등의 질문이 명료성이 떨어지는 질문입니다.
- 본 연구는 실험법이 아니라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실험집단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마크 로스코전> 관람객은 표본 집단입니다.
- <마크 로스코전> 관람객은 문화 인식 수준이 높을 수 있는 집단을 연구자가 일부러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100명을 임의추출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지역,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까다로우서 어지간하면 다 틀린 선지로 등장)
- 양적 연구 과정에서 결론 도출 과정과 자료 수집 과정,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하고, 연구 주제 설정, 세부 실행 계획 구상, 제언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정답 : 4

5.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사회실재론인지 사회명목론인지 구분만 해주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린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발문을 잘 파악하자.

< 제시문 분석 >

(가)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외부적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 사회 구조의 외재성을 중시하는 사회실재론적 입장

(나)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 개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사회 명목론적 입장

<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외재성(개인의 특성을 사회 구조에서 통제하는 성질)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실재론(사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②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는 쪽은 사회명목론보다는 사회실재론이다.

③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중시하고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입장은 사회명목론(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의 이름에 불과함)이다.

④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옳다.

⑤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높은 것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실재론이다.

정답 : 5

6.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문화의 의미, 문화 접변]

문화접변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풀이한다.

1) 어떤 문화요소의 특징인지를 대충 파악한다.

2) 제시문에 나온 선지와 자신의 선지를 비교하여 풀이한다.

< 제시문 분석 >

밀줄이 그어진 문제는 밀줄 중심으로 제시문 분석해야 한다.

음식 문화

=> '고상한 것'이라는 문화의 좁은 의미보다는 '인간의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의미의 문화의 넓은 의미의 문화가 더 적절할 것이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빨간 김치가 반찬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

=> 사회내에서 문화는 공통적으로 향유되는 생활양식이라는 공유성

고춧가루

=>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을 이용한 결과물로 볼 수 있음

고춧가루가 전래되고 김치를 담그는 데 고춧가루가 양념으로 들어가면서..

=> 김치에 고춧가루가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김치에 고춧가루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여 지금과 같은 김치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김치 + 고춧가루 = 지금과 같은 김치라는 문화융합의 모습을 보입니다.

< 선지 분석 >

ㄴ. 문화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는 특성은 공유성이 아니고 총체성입니다.

ㄷ. 인간의 심미적 욕구에 의해 창조되는 활동은 예술입니다.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학습성

문화요소는 상징을 통해서 전승되고,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후천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요소들을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면 학습성이 되겠죠?

2. 공유성

문화는 각 사회내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그 사회의 구성원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공유성입니다. 예를 들어, "너 언제 국수먹여줄 거야?"라는 표현은 외국인이 듣기에 왜 갑자기 요리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은 언제 결혼할 거야? 의 의미로 받아들일것죠.

3. 총체성(전체성)

문화의 총체성은 문화의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피임약의 발명은 여성이 낳을 아이의 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여성은 아이를 덜 낳게 되어 남자처럼 경제적 활동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 것이 총체성입니다.

4. 축적성

문화의 축적성은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X

5. 변동성

축적성과 많이 헷갈려합니다. 변동성은 문화요소는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한다는 의미로, 축적성의 풍부해진다는 의미와 구분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정답 : 1

7.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떤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편적, 필수불가결 등 기출선지를 잘 분석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시문 분석 >

(가)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기능론적 입장, 균등 분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음  
사회 전체적으로 능률을 높이는 결과 => 사회의 균형을 찾음

(나)

빈곤을 낳는 부당한 구조 => 갈등론적 입장. 사회 구조적으로 특정 계층(유산계급)에게 유리한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입장은 갈등론적.

< 선지 분석 >

①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② 성취 동기의 자극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③ 성취동기가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 (이것은 교육을 위한 동기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하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④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은 기능론입니다.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정환경이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죠.

⑤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은 기능론입니다. 갈등론은 특정집단(지배 계급)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정답 : 3

8.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가설의 설정과 검증]

가설의 설정과 검증에 대한 부분은,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들어 있는 부분으로, 교과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지만,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때 자주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 제시문 설명 >

좋은 가설의 세 가지 요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1)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존재하고 그 관계가 명확할 것
- (2) 검증이 가능할 것
- (3)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

< 선지 분석 >

- ① 하느님이 정말로 존재할 것이라든 것은 경험적 자료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본 경험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가능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 ② 강남은 소득이 높은 지역일 것이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애초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어서 이런 가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 ③ 의미 있는 삶이라는 개념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④ 청소년 평균 연령은 성인의 평균 연령보다 높을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인도 청소년보다 어리지 않고, 그것이 모두에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설은 검증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⑤ 독립 변수는 주당 외식 회수이고 종속 변수는 행복지수이며, 그 둘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명확하고 이러한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검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좋은 가설입니다.

정답 : 5

9.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독해문제로 주로 나오고,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 제시문 분석 >

이 공간에서는 다른 감각이 뛰어난 시각 장애인이 아닌 비시각 장애인은 장애인이 되고, 사회적 소수자가 될 것이다.  
=> 사회적 소수자의 상대적인 규정을 나타보여줍니다.

< 선지 분석 >

- ② 사회적 소수자의 여부는 수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거니와 제시문의 내용과는 상관 없습니다.
- ③,④,⑤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이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 1

10. 난이도 : 中上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대한 문제는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험, 2015년 6월 모의고사, 2015년 9월 모의고사, 2015년 수능 X등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표분석 문제의 선지들은 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나마 쉽게 풀리는 편이고(풀이에서 보여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빈곤 표풀이에는 몇 가지 풀이법들이 있습니다. 공식들을 잘 활용해서 푸시면 이정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 선지 분석 >

- ㄱ. 같은 기간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이 같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 ㄴ. 2011년 절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3%인데, 그들의 소득이 3% 이상을 벌 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빈곤율이 3%일 때 절대적 빈곤층인 사람들은 전체에서 소득으로 하위 3%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3%를 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어 시험을 봤는데, 반이 30명이고 30명의 점수를 모두 합치면 2400점이라고 합시다. 꼴등부터 3명을 뺐을 때, 그들의 점수의 합점수가 240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원리랑 같습니다. 또한, 소득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가정 때문에 동점자와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ㄷ. 주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인구는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표에서는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사람이 버는 수익)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과 국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곧 선이 되는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수치 모두 주관적인 빈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ㄹ. 서로 다른 기간의 인구 비율을 더하라고 합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거나 10배로 늘어나 버린다면 ㄹ 선지가 맞기도하고 틀려지기도 하겠죠? ㄹ 선지는 2010년과 2011년의 인구에 대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 빈곤 표풀이 풀이법 ]

(1) 선지에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적 빈곤선이라는 표현으로, (2)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상대적 빈곤선  $\times 2$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 선지의 내용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으로 바꿔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정답 : 3

11. 난이도 : 中上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2014년부터 출제가 꾸준히 되어오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2가지,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사회는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서구 선진국들의 방향으로) 한편, 순환론은 사회는 생성-발전-쇠퇴-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이러한 문제들은 엮어서 출제가 되는데,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있습니다. 근대화론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관점으로, 서구선진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근대화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종속이론은 서구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중심부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제 3세계로 대표되는 주변부간의 종속 관계(이익을 착취하는 관계)에서 제3세계의 저발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 제시문 분석 >

- (A) 인간 사회는 원시적, 중간적, 근대적 사회로 변해왔다 => 발전을 암시  
중간적 사회로 발전 => 사회 변동을 발전으로 보는 진화론
- (B) 일정한 궤적을 계속 돌고 있다 =>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는 순환론
- (C) 남미 => 제 3세계, 주변부, 저발전국가 미국 => 중심부, 선진국  
중심부(미국)과 주변부(남미)의 이익분배가 공정하지 않아, 제 3세계(남미)가 저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선지 분석 >

- ① 사회 변동을 선진적 사회로 바라보는 관점은 위에서 언급했듯 진화론입니다.
- ② 사회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반복함에 주목하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 ③ 종속관계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별한 종속이론입니다.
- ④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입장은 진화론입니다. 선진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변동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보다는 일정한 양상으로 사회가 변동한다고 보았습니다(진화론도 일정한 양상으로 사회가 변동한다는데 동의합니다.).
- ⑤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 뿐입니다. 종속이론에서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내부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으로 발전할 것을 중시합니다.

정답 : 5

12.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문화의 이해]

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인데, 문화 접변의 양상과, 문화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화 접변의 발현지가 그 사회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내재적 문화접변과 외재적 문화접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내재적 문화접변에는 존재하던 것을 단순히 이용해내는 발견과 새로운 것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발명이 있다. 반면 외재적 문화접변에는 다른 사회에 존재하던 것을 사람이 직접 전달해주는 직접전파, 다른 사회에 존재하던 것이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전파, 다른 사회에서 그 대상에 대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자극전파로 구별할 수 있다. 또, 문화 접변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강제적 문화접변, 문화 접변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발적 문화접변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 접변의 결과로 3가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이 있다. 문화 동화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변했을 때 한 쪽의 문화요소가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 공존은, 두 가지 문화가 접변했을 때 두 가지 문화 요소 모두 서로 독자적으로 공생함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 융합은 두 가지 문화 요소를 융합하여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띠나 새로운 성격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제시문 분석 >

B국에서 (가) 기술은 외교관 즉, 사람에 의해 직접 전파된 문화요소이고, C국에서는 (가) 기술에서 영감을 얻어 (나) 기술로 자극전파 된 상황이다. 또, C국에서는 변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규범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 선지 분석 >

- ㄱ. 산업화라는 표현과 기술이라는 표현을 통해 존재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 요소를 내적으로 발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ㄴ. B국이 A국에서 외교관을 통해 (가) 기술을 전달받았으므로 직접전파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 ㄷ. (가)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 기술을 만들었으므로 자극전파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 ㄹ. C국에서 (나) 기술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 나타난 반응은 변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규범이 나타나 사회에 혼란이 오는 아노미 현상입니다.

정답 : 2

13.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며, 문제 출제 유형이 상당히 고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 유형은 썩뚱맞긴 했지만, 평가원 문제는 전혀 그런식이 아니라 지돌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형식이 절대 다수이므로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하시는게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회 보장 제도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면 선지들이 속지가 잘 되어있다는 가정 하엔 엄청나게 쉬운 유형입니다.

< 표 분석 >

질문	A	B	C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가요?	네	네	아니오
의무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네	아니오	아니오

< 선지 분석 >

- ① 상호부조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납입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을 조금씩 모아서 서로 서로 돕는다는 의미로, 사회보험의 특성입니다.
- ② 수혜 정도에 따라 복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내가 수혜할 정도에 따라 금액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도 공공부조의 특성도 아닌, 사적 보험(AIG 보험같은)의 특징입니다.
- ③ 소득 재분배의 목적이 있는 것은 공공부조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불한 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

이 내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은 내지 않게 됨), 공공부조는 국가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④ 사회보험은 사전예방적(어떤 제도의 대상자가 수혜받기 전에 이미 소득의 일부를 납입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은퇴, 상해, 실직 등)가 되어야 수혜를 받기 때문)이고, 공공부조는 사후처방적(어떤 사람이 문제(생활 곤란 등)에 처한 나중에 그에 대한 해결책(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 지원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⑤ 공공부조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기업, 개인 등이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이다.

정답 : 1

14.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문화 이해의 태도]

문화이해의 태도와 문화 이해의 관점은 번갈아서 출제가 되는 편인데, 특히 태도가 출제율이 높습니다. 문화 이해의 태도는 크게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절대론적 태도, 문화가 발생한 맥락과 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고, 절대론적 태도안에 자기 문화의 관점으로 타문화의 관점을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른 문화(특히 선진국의 문화)의 가치를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문화를 저평가하는 것을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 한편, 이 문제와는 관련없지만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상대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이 있다. 상대론적 관점은 상대주의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각 문화가 발생한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고,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의 각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유기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비교론적 관점은,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 제시문 분석 >

- (가)는 해당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의 관점을 통해 => (가)는 문화 상대주의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발생한 맥락, 즉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의 관점을 통해 파악하는 것)
- (나)는 자기 사회의 관점을 내세워 // 업신여긴다 => (나)는 문화 사대주의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다고 느끼고 타문화를 저평가 하는 것)

< 선지 분석 >

- ①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절대론적 태도보다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론적인 태도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문화가 살아남아야 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보존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겠죠.
- ②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절대주의적 태도입니다.
- ③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자는 선진국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④ 반인륜적 문화 요소를 합리화 수단이 될 수 있는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 ⑤ 문화제국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신의 문화만이 선진되어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동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 1

15.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가족 제도를 보는 관점]

가족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가족, 교육, 종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번갈아 출제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난이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능론 / 갈등론 문제와 비슷합니다.

< 제시문 분석 >

- A : 특정계층에게 유리한 사회적 구조 <= 지배 계급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의미로, 갈등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 B : 부양과 보호의 기능 <=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상호 유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능론적 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선지 분석 >

- ① 가족제도에서 성별별로 각자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업하라는 사회 구성원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기능론입니다.
- ②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은 기능론입니다.
- ③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 ④ 가부장적 구조 등, 불평등한 가족 관계가 고착화된다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입니다.
- ⑤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거시적 관점입니다.

정답 : 3

16.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에 관한 문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선지가 계속 출제되니 여러 번 연습해놓으면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 제시문 분석 >

사회계층화에 대한 이론 중 계급론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이분법적, 불연속적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선지 분석 >

- ①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는 것이 용이한 이론은 계층론입니다. 계급론은 계층화에 대해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만 분류하는 데 반해, 계층론은 경제, 정치, 사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상층에 위치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 ② 교육 등을 통한 사회이동이 자유로움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역시 계층론입니다. 계층론은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기능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 ③ 연속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은 계층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층론은 경제, 사회, 정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상층, 중층, 하층으로 분류하여 상당히 연속적으로 분류하였고, 다원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계급론은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분류하여 일원론적이고, 불연속적입니다.
- ④ 계층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쪽은 계층론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화 기준이 존재하며, 그러한 계층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같이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해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계층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계층 의식이 뚜렷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계급론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무산 계급(프롤레타리아)에 속한다면, 유산 계급(부르주아)들의 이권 착취에 대해서 투쟁하고, 사회 변동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구성원들의 계층 의식이 강화가 될 것이구요.
- ⑤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은 계급론입니다. 계급론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가 그 사람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까지 모두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17.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中]

[출제 포인트 : 정보사회, 산업사회, 농업사회]

여러 가지 사회 유형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는 2014년 잠시 출제가 안 되었다가 다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 역시 나왔던 선지가 또 나오고 나왔던 선지가 또 나오니 기출선지를 완벽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분석 >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순서는, 산업사회 - 정보사회(3차 산업의 비중 증가) - 농업사회 (산업혁명 일어나지 않음.)입니다.

< 선지 분석 >

- ① 3차(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더 높은 쪽은 B(정보사회)입니다.
- ②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순서는 농업사회(집 앞 텃밭에서 일하는 거 생각) - 정보사회(재택근무) - 산업사회 순입니다. 따라서 C(농업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더 높습니다.
- ③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더 높은 사회는 B(정보사회)입니다. 의사결정 분권화 정도의 향상은 민주주의의 영향이 큼니다.
- ④ 1차 산업(농업 등)의 차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C(농업사회)입니다.
- ⑤ 소품종 소량생산(농업사회) - 소품종 대량생산(산업사회) - 다품종 소량생산(정보사회)로 생산 방식이 변해왔습니다.

정답 : 4

18. 난이도 : 中 [동일 유형 출제빈도 : 100%]

[출제 포인트 :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일탈에 관한 이론은 최근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탈에 관한 이론은 기본적으로 3가지 이론들,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 이론이 출제되지만, 가끔 갈등론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낙인이론과 갈등론을 구분하는게 가끔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낙인이론은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유념하면 문제풀이의 명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 제시문 분석 >

(갑)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제도적 수단이 없음 =>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

하층 계층을 범죄시키고  
=> 계층을 이원화하려는 뉘앙스, 갈등론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의도가 개입된 것

=> 기존의 사회질서는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 갈등론

(병)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차별적 교제 이론

< 선지 분석 >

- ㄱ.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은 낙인이론입니다. (객관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행동이 일탈로 규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 ㄴ. 일탈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일탈자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일탈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별적 교제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입니다.
- ㄷ.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입니다. 낙인 이론은 어떻게 사람들이 한 개인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범죄자에게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적 교제이론은, 어떻게 한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을 내면화하는지를 초점을 맞추니까요.

정답 : 5

19. 난이도 : 下 [동일 유형 출제빈도 : 上]

[출제 포인트 : 여러 가지 유형의 대중매체]

대중 매체의 유형과 그 특징을 묻는 문제는 최근까지 아주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의 유형을 묻는 문제를 만나면 인쇄매체 / 음성, 영상 매체 / 뉴미디어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것입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잘 익히고 문제 풀이를 몇 번만 해놓으시면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 자료 분석 >

A와 B가 뉴미디어와 인쇄매체중 하나일 경우,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

약이 적은 것은 뉴미디어겠죠. 한국에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린 내용이 10초면 외국으로 전송되니까요. 그렇다면 A는 뉴미디어, B는 인쇄매체일 것입니다. 한편, (가)는 A는 높거나 강하고, B는 낮거나 약한 성질일 것입니다.

< 선지 분석 >

- ① 정보전달의 속도는 뉴미디어가 더 높으므로 (가)로 적절합니다. (페이스북 게시글이 몇 초면 미국으로 날라갈 수 있는걸 생각해주세요)
- ② 정보의 일방향성은 인쇄매체가 더 높으므로 (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쇄매체에다가 백날 말한다고 대답을 해주진 않죠? 한편, 페이스북은 댓글이나 메시지 등의 기능으로 쌍방향성을 가집니다.)
- ③ 정보 통제의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인쇄매체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 많은 기사들이 검열돼 백지로 나온 역사적 사실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 ④ 인터넷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은 뉴미디어입니다.
- ⑤ 뉴미디어의 콘텐츠는 아무나 기고할 수 있지만, 신문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기고하는 글이죠?

정답 : 2

20. 난이도 : 中上 [동일 유형 출제빈도 : 100%]

[출제 포인트 :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표분석 문제는 항상 20번에서 등장(출몰?)합니다. 이걸 항상 나오기 때문에 다 맞춰야 정상인데, 늘 유형이 진화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이 유형을 만났을 때 98%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풀이는 '무조건 기본표를 그리자'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기본표의 3\*3의 빈칸 중 5칸이상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우하향 대각선의 값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4칸만 채워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표를 완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면 쉽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A회에 있는 표분석 문제의 경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 기본 유형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풀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 A회이므로 이 문제를 맞췄으면 기본은 하실 줄 아시는 거고 틀리셨으면 앞으로의 표풀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유형화하시고 연습을 수차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표 분석 >

계층	비율(%)
상층	100
중층	50
하층	70

계층비	비
중층대비	1/3
상층	
중층대비	2
하층	

- (가)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상대적 비율
- (나) 자녀세대 각 계층별 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상대적 비율
-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부모세대의 계층 비율은 상층:중층:하층이 각각 2:3:5이다.

(1) 부모세대 계층의 비율과 자녀세대 계층의 비율을 파악하기  
표에서는 자녀세대의 계층별 상대적 비율과 부모세대의 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는 거의 부모세대 계층의 비율과 자녀세대 계층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부모세대의 계층의 상대적 비율은 2:3:5라고 하였으므로 상층의 비율은 2/2+3+5 = 20%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부모의 계층의 비율은 상층:중층:하층이 20:30:50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녀세대의 계층별 상대적 비율은 중층대비 상층이 1/3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중층이 상층에 비해 3배 많다는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중층대비 하층이 2(는 1분의 2와 같죠?)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중층이 하층인구의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상층의 인구를 a라고 하면 a + 3a + 6a = 100%가 되는 것입니다. 10a = 100%이므로, a = 1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율은 각각 10%:30%:60%가 됩니다. 이를 기본표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		부모			계
		상	중	하	
자녀	상				10
	중				30
	하				60
계		20	30	50	100

(2) 계층이 유지된 비율을 이용하여 표 채우기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은 자녀 세대 상층,

중층, 하층을 각각 분모로 두었을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분자로 둔 값을 의미합니다. 자녀세대의 상층인 비율은 10%라고 도출해냈는데, 10% 중 10%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이 같아야 100%의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이 유지된 비율을 나타낼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30%(자녀세대 계층이 중층인 비율)중 15%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이 중층으로 같아야 계층 일치 비율이 50%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0%(자녀세대 계층이 하층인 비율)중 42%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계층이 하층으로 나타나야 계층 일치 비율이 70%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대 A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 (부모 세대에서도 A층이고 자녀 세대에서도 A층인 비율) / (자녀 세대 계층이 A층인 비율) ”  
우리는 자녀 세대 계층이 A층인 비율과 자녀세대 A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세대 A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 자녀 세대 계층이 A층인 비율 = 부모세대에서도 A층이고 자녀 세대에서도 A층인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해보면 정말 간단하니까 직접 해보십시오.

이렇게 얻은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구분		부모			계
		상	중	하	
자녀	상	10			10
	중		15		30
	하			42	60
계		20	30	50	100

와 같이 나타냅니다.

(3) 부가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표 완성하기

주어진 조건으로 아직 표의 5칸을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맥락 상의 조건이나, 당연히 채워져야 할 칸들을 채우면서 표를 완성해 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자녀 세대의 상층에서의 일치 비율이 100%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중층이나 하층일 때 자녀가 상층인 비율이 0%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는,

구분		부모			계
		상	중	하	
자녀	상	10	0	0	10
	중		15		30
	하			42	60
계		20	30	50	100

와 같이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세대의 계층비나 자녀세대의 계층비로 표를 완벽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		부모			계
		상	중	하	
자녀	상	10	0	0	10
	중	7	15	8	30
	하	3	15	42	60
계		20	30	50	100

이렇게 완성됩니다.

< 선지 분석 >

- ① 계층이 안정적인지 판단하려면, 중층의 비율이 높은 쪽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됩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중층이 30%이므로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계층구조인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 ② 세대 간 계층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100% - (세대간 계층을 하지 않은 비율, 즉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10%+15%+42%=67%}) = 33%입니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세대 내 계층이동에 대해서 묻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표와 상관없는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③ 부모세대 상층인 사람 중 자녀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10%/20%로 50%입니다.
- ④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세대간 하강이동한 비율은 전체의 25%이고, 세대간 하강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8%이고, 같은 전체 집단에 대한 비율에 대한 비교이므로 비율이 더 큰 쪽이 더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개방적인 계층 구조를 가지는지는 단순히 계층의 구조가 더 다이아몬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층관련 표에서 개방적이다 / 개방적이지 않다 와 관련된 선지는 항상 옳지 않은 분석이 됩니다.

정답 : 4

-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표분석 문제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풀이했습니다. 표 문제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오르비 지도리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표 기본트레이닝 자료를 업로드 해놓았습니다~